

북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최우수기관 평가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서 광주 유일 최우수 선정
만성질환 예방 성과 인정...복지부 장관상 수상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광주 유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금연, 심뇌혈관질환 예방, 비만 예방, 방문 건강관리 등 12개 분야의 건강 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본인에게 적합한 건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주민 생애주기별 건강 개선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북구의 특성을 반영해 '건강취약계층 방문 관리', '어르신 한방건강 관리' 등 사업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수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분야에서도 호평받았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양 개선, 출산 준비, 산후 건강관리 등 맞춤형 관리를 폭넓게 펼쳤다.

이외에도 신규 맨발 산책로 3개소 확충, 걷기클럽 운영 지원, 실내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이 평소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북구는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아 3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과 함께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온 보건소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건강 수준 향상에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서구, e-제너두(주)와 손잡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용 기부물 개설·온누리 혜택 제공
기부 참여 확대·답례 혜택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간 복지 플랫폼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서구는 30일 서구청 3층 나눔홀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송동진 e-제너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제너두(주)는 전국 2800여 개 공공기관과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약 330만 명의 회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선택적 복지 플랫폼 기업이다. 맞춤형 복지시스템과 복지카드 연계 서비스를 선도해 왔으며 전통시장 상생 플랫폼 '온누

리시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7월 중 전용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서구 단독 기부물'을 개설·운영하고 e-제너두 고객사와 회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답례품을 홍보해 참여를 확대한다.

또 '온누리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과 함께 공동 홍보와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전국 기부자 참여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송동진 e-제너두(주)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플랫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

며 "서구와 함께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330만 명의 복지플랫폼 회원과 80만 명의 온누리시장 회원을 보유한 e-제너두와의 협력은 서구를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기부자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서구는 모금된 기부금을 활용해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세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답례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해 신규 기부자 발굴에도 나선다. 또한 기부금 사용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가영 기자



e-제너두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